

## 世宗朝 文學 관련 書籍 出版 연구

김 은 정\*

### < 目 次 >

- |                     |                     |
|---------------------|---------------------|
| I. 서론               | 1. 『文選』 등 기본 서적     |
| II. 문학 관련 서적 출판 배경  | 2. 詩學 진흥과 李白, 杜甫 시집 |
| 1. 出版 하드웨어 정비       | 3. 독자적인 詩文集 편찬과 주해  |
| 2. 詞章, 詩學의 진흥       | 4. 安平大君 주도 간행 서적    |
| III. 문학 관련 서적 출판 양상 | IV. 결론              |

### <국문 초록>

세종조에 수많은 서적이 출판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출판 관련 하드웨어의 정비를 들 수 있다. 세종조에는 활자를 정교히 다듬어 庚子字와 甲寅字가 나왔고, 조판 기술과 인쇄술 또한 발달하였다. 또한 세종은 인쇄할 때 소용되는 종이를 확보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 造紙署를 통해 지료의 다양화와 배합지 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책지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세종조의 수많은 서적은 기술적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세종조 초반에는 문학 관련 서적이 드물게 간행되었다. 세종이 문학을 末藝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1435년(세종 17)에 세종 스스로가 시부를 좋아한다고 하고, 실용적인 목적으로 詞章을 권장하면서 문학 관련 서적이 전에 비해 늘어나게 된다. 그 결과 경자자로 11종, 갑인자로 21종의 서적이 간행된다.

세종조에 간행된 문학 관련 서적의 특징은 조선의 독자성을 띠는 점이다.

\* 홍익대학교(세종) 조교수 / [eunsiro@daum.net](mailto:eunsiro@daum.net)

가장 앞선 것으로 경자자본 『文選』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중국에서 확인할 수 없는 秀州 州學本을 저본으로 하였는데, 여기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지만 일설되었던 國子監本(이선주본)과 孟氏本(오신주본)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이유로 전승이 되지 못하거나 구하기 어려운 『문선』 관련 판본을 확보하여 간행함으로써 학술의 정통성을 계승해 나갔다고 하겠다.

아울러 학시의 전범이 되는 杜詩 관련 서적을 다수 간행하면서 독자적으로 주해를 달아 『纂註分類杜詩』이 세종 말엽에 완성된다. 『찬주분류두시』는 조선의 학자들이 주석본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독자적으로 편찬한 새로운 서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종이 중국본을 수입하여 복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주석본을 새로 편찬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독자적인 서적 편찬은 세종조 중반 이후 중요 시문집 간행의 기본 방향으로 자리잡았다.

韓愈, 柳宗元, 蘇軾의 시문집을 간행할 때도 집현전에서 중국의 여러 전적을 참조하여 체계적인 체제를 갖추면서도 자세한 주석을 덧붙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간행하였다. 한편 『찬주분류두시』 편찬을 총관하기도 한 安平大君은 독자적인 안목을 지니고 적극적으로 시문을 평가하여 여러 종의 시문집을 편찬, 간행하였다. 이는 안평대군의 개인적인 취향과 문학적 역량, 그리고 당시 조정에서 독자적인 주해서를 편찬하는 분위기가 작용한 결과라 하겠다.

【주제어】 世宗, 文學 書籍, 出版 하드웨어, 詞章, 독자적 詩文集, 독자성, 安平大君

## I. 서론

세종은 태종이 이루어놓은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조선왕조를 보다 발전된 유교국가로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래서 조선조에서 가장 빛나는 유산과 업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위 초반 왜구와 여진족의 침입, 계속되는 흉년 등으로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세종은 公論 정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부국과 민생안정을 이룬 것이다.<sup>1)</sup> 세종은 또한 文治의 右文政策을 추진하여

향후 조선의 문화적인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 때 세종의 문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적의 보급이었다.

儒敎立國을 기치로 내세운 조선은 국가의 문물제도를 유교적인 것으로 재정비하고 개혁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유학의 진흥과 국가의 틀을 정비하는 과정에 書籍은 매우 중요하였고, 이로 인해 태조대부터 중국 서적을 확보하고, 편찬·간행을 병행하여 널리 보급하는데 힘썼다. 문치에 힘쓴 세종대에 이르면 이전의 서적 간행과 보급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서적이 편찬되었다.

2000년에 손보기 교수가 행한 조사에 의하면 세종조에 간행된 서적은 22분야의 360종인데, 天文(54종), 經書(45종), 史書(29종) 등의 비중이 크다.<sup>2)</sup> 이 외에도 政法, 儀禮, 地理, 醫藥, 農業, 音樂, 兵學 등의 다양한 분야의 서적이 간행되었다. 세종이 통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서적과 백성의 삶과 직접 관련된 서적 편찬에 적극적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세종조에는 문학과 관련된 서적 역시 많이 편찬, 간행된다. 이에 관해서 김학주 교수의 연구가 참고되는데,<sup>3)</sup> 김학주 교수는 세종대의 문학 관련 서적에 대해 중국문학사 발전의 주류를 정확히 파악하였고 간인의 저본으로 삼은 판본도 정선된 것이어서 이후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중국 문학의 연구와 이해를 위한 초석이 된다고 평가하였다.<sup>4)</sup> 또한 심경호 교수는 조선전기에 복각, 편찬된 註解本을 살피는 과정에서 세종조의 문헌을 두루 다루기도 하였는데, 문치에 힘쓴 세종이 중앙에서 활자로 서적을 간행하는 한편으로 지방관아로 하여금 중앙에서 반포한 서적을 목판으로 간행케 함으로써, 문화를 통일하고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꾀하였다고 하

1) 박현모, 「세종의 공론 형성과 국가경영-貢法 도입과정을 중심으로」, 『세종의 국가경영』, 2006.

2) 박현모 외, 『세종의 서재』, 서해문집, 2017, pp.4-5.

3) 김학주, 「조선 간 중국 문학 관계 문헌의 개략적인 상황」, 『조선시대 간행 중국문학 관계서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p.2-10.

4) 김학주, 앞의 논문, pp.10-12.

였다.<sup>5)</sup>

그런데 기존 연구는 조선시대 전반이나 조선 전기의 문학서를 다루는 가운데 세종조의 문학 관련 출판물을 언급하는 경향을 보인다. 세종조에 출판된 전체 서적 중 문학 서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세종조에 출판된 문학 관련 서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종조 간행 문학 서적의 개별적인 의의에 관한 연구가 많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망한 경우는 아직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학 관련 서적이 출판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서 세종과 당시 문단의 흐름을 살피도록 하겠다.

## Ⅱ. 문학 관련 서적 출판 배경

### 1. 出版 하드웨어 정비

조선은 기록문화 강국이라 일컬어진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의 유산이 그 증거물이라 할 수 있다. 기록문화의 발달은 곧 서적의 축적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서적은 축적하기만 하면 안 된다. 서적은 독서행위를 동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책을 많은 사람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적을 안정적으로 보급해야 하고, 이러한 이유로 인쇄술의 발달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인쇄술은 인쇄 매체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쳐 발달하였다. 동일 서적을 다량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은 목판 기술이 일반화되면서 갖추어졌다. 그런데 목판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책판 하나로 오로지 한 종류의 책만 찍는 결점이 있었다. 또한 책판은 수량이 많고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

5) 심경호, 「조선전기의 註解本 간행과 문헌 가공에 대하여」, 『大東漢文學』 20, 2004, p.206.

문에 보관이 어렵고, 마모되거나 찌거나 균열이 가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活字가 발명됨으로써 서적 보급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조에 이미 금속활자가 발명되었고, 證道歌字本, 詳定禮文字本, 興德寺字本, 高麗復字 등을 현재 확인할 수 있다.<sup>6)</sup>

조선에서는 태종조에 본격적으로 금속활자 주조가 이루어졌다. 1403년(태종 3)에 태종은 鑄字所 설립을 명함으로써 활자 주조와 서적 간행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 주자소 설립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주자 제작에 쓰이는 銅이 전량 수입에 의존해 있었기 때문에 대신들이 비용 문제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태종은 주자소 설립으로 얻을 수 있는 문화적인 긍정적 영향과 국가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우선은 주자소를 개설하되, 경비는 조정에서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sup>7)</sup> 이런 이유로 임금이 쓰는 內帑을 내어 경비로 삼게 하여, 이른바 癸未字가 주조되어 여러 서적이 간행되었다.<sup>8)</sup>

그런데 계미자는 고려말의 흥덕사 활자보다 개량되기는 하였으나 인쇄 조판 기술이 아직 미숙하여 하루에 찍어내는 수량이 몇 장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종 2년(1420)에 새로 주조된 것이 庚子字이다. 계미자가 모양이 크고 가지런하지 못하며, 주조도 거칠어 인쇄 도중 동요가 잦아 능률이 오르지 않은 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조판술도 개선하여 하루 인쇄 양이 20여 장으로 대폭 증가할 수 있었다.<sup>9)</sup>

갑인자는 세종 16년(1434)에 계미자를 더 개선하여 만든 활자이다. 세종조에 축적된 과학 기술을 동원하여 주조했기 때문에 활자의 모양이 정교

6) 천혜봉, 『한국금속활자본』, 범우사, 1993.

7) 유대균, 「선조 주자소 설립과정과 그 활동」, 『東洋古典研究』 29, 2007, pp.203-209.

8) 천혜봉, 앞의 책, p.37.

9) 천혜봉, 앞의 책, pp.43-47.

하였다. 조판 기술 또한 전 시기에 조판할 때 사용해야만 하였던 밀랍을 사용하지 않은 완전 조립식으로 고안하였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안정적이면서도 다량의 인쇄가 가능해져 하루의 인쇄량이 40여 장이나 되었다. 주조술 면이나 조판술 면에서 모두 조선 금속활자의 완성판이라 할 수 있는 갑인자는 조선 말까지 여섯 차례 개주되면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sup>10)</sup>

갑인자가 하루에 인쇄할 수 있는 종이는 40여 장으로, 계미자가 하루에 몇 장 찍어내지 못한 것에 비해 약 10배에 이른다. 즉 불과 30년 만에 10배의 인쇄 효율을 올리게 된 것이다. 세종은 이러한 인쇄술을 바탕으로 대규모 인쇄 사업을 벌이게 되는데 이는 자동적으로 종이 수요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종이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하였다.

조선 초기에 종이를 생산하고 감독하는 기관으로 造紙署가 설치되어 있었다. 태종 15년(1415)에 外方에서 화폐로 사용되는 楮貨紙를 만드는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폐단을 막기 위하여 造紙所를 설치한 것이다. 지방의 紙所 등에서 제조된 종이가 일정치 않고 품질이 열악하여 생기는 進貢의 폐단을 감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태종대의 조지소는 상설 기관이었다기보다 필요할 때마다 가동하는 임시 기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1)</sup>

그런데 당시 조선의 종이 사정은 좋지 못한 편이었다. 태종조부터 明으로부터 꾸준히 進獻紙 요구가 증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1407년부터 1424년까지 18년간 15만 장의 최고급 종이를 명에 진헌하였는데, 처음에 조선 조정은 진헌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상도·전라도·충청도 등 각도에 생산량을 分定하였다. 이렇게 하여도 1만 장을 확보하는데 2년이 소요되었다.<sup>12)</sup>

세종은 진헌지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년(1420)에 특별히 조지소를

10) 천혜봉, 앞의 책, pp.48-54.

11) 정선영, 「조선지서의 관제와 관리」, 『서지학연구』 50, 2011, pp.92-93.

12) 박준호, 「조선 전기 紙料와 配合紙 생산」, 『동양학』 66, 2017, pp.5-6.

설치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전까지 임시 기관으로서 독립된 건물이 없던 조지서를 藏義洞에 자리 잡게 한 것이다. 또한 세종 13년(1431)에는 관제를 설치하여 호조에 예속시켰다.<sup>13)</sup> 또한 1426년부터 장의동에 다나무를 재배하여 종이 수요를 충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하여 고급 진현지의 조지소 생산 체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생산할 수 있는 楮의 양은 고갈되어 값고 지방 분정 생산으로 인한 백성들의 폐해도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sup>14)</sup>

이러는 사이에 인쇄술의 발달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인쇄 사업을 벌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冊紙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에 분정하여 책지를 바치도록 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1423년 『綱目續編』을 인출할 때 경상도 1,500권, 전라도에 2,500권의 종이 진상을 명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진현지 생산에 역력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을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sup>15)</sup>

이 때 부족분의 종이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 紙料 다양화의 방법이 제시되었다. 1424년 8월 조지소에서 竹葉松葉蒿節蒲節 4종류의 책지 406첩을 만들어 주자소에 보내게 된다. 종이의 재료가 되는 楮를 대신할 원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제지 방식을 고안하였던 것이다. 1434년에는 蒿節麩麥節竹皮麻骨 등 확보하기 쉬운 것을 楮와 5:1 비율로 배합하여 사용할 것을 지시한다. 문종이 즉위하였을 즈음에는 지방에 분정한 종이 역시 지역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지료 사용을 권장하여, 경상도는 麩節紙柳木紙, 전라도는 蒿精紙柳木紙, 충청도는 麻骨紙, 강원도는 柳木紙를 쓰도록 하였다.<sup>16)</sup>

이렇듯 세종조에 서적 간행 문화가 꽃피울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완성되었다. 활자를 지속적으로 개량하는 한편으로 조판 기술을 발달시켜 밀랍

13) 정선영, 앞의 논문, pp.96-97.

14) 박준호, 앞의 논문, p.120.

15) 박준호, 앞의 논문, p.121.

16) 박준호, 앞의 논문, pp.123-125.

없이 대나무만 사용하여 간단하게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조지서를 통한 종이 제작 감독 및 지휘, 지료의 다양화와 배합지 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조선 초기에 종이 수급에 안정을 꾀하면서 본격적인 대규모 서적 인출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출판 하드웨어의 정비가 있었기 때문에 세종조에 수많은 서적이 간행될 수 있었다고 하겠다.

## 2. 詞章, 詩學의 진흥

세종은 교육과 文運을 진흥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펼쳤다. 集賢殿의 설치와 역할 강화가 대표적인 예이다. 1420년(세종 2)에 집현전을 개설하도록 하여 관원들로 하여금 經史를 강론하고 임금의 자문에 대비하도록 하고 이들을 經筵에 참여시켰다. 세종조의 경연에서는 단순히 임금의 학습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進講 뒤에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다. 그리고 진강 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집현전 관원들은 교재에 대한 사전 연구를 철저히 해야만 하였다. 특히 文翰으로서 임금의 고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古制를 연구하는 일을 주로 하였다.<sup>17)</sup>

古制 연구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서적이 구비되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책이 쌓이고 쌓여 열람하기 곤란한 지경에 이르러서, 1429년(세종 11)에 장서각 5칸을 새로 짓게 되었다.<sup>18)</sup> 별도의 장서각을 마련할 정도로 서적을 충분히 확보한 집현전에서는 조선의 문물과 제도 정비를 위해 중국과 우리나라의 제도들 중에서 전범으로 삼을 만한 사례들을 연구하였고, 그 연구결과를 다시 서적으로 출판하여 또다른 서적을 축적해 나갔다.<sup>19)</sup>

서적을 수집하는 일은 세종 전대부터 있었던 일로, 조선 조정은 건국 초기부터 다양한 서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중국 서적

17) 박승애, 「世宗의 讀書活動에 관한 研究-經筵 進講을 中心으로」, 『사대도협회지』 6, 2005, pp.116-119.

18) 李季甸, <集賢殿藏書閣頌(并序)>, 『東文選』 권50.

19) 강문식, 「世宗의 ‘인재경영’과 集賢殿」, 『선비문화』 13, 2008, p.21.

은 천자로부터 하사되어 수입되는 賜入과, 사신이 직접 대가를 지불하고 수입하는 購入의 두 가지 방법으로 확보하였다. 사입되는 서적은 국가의 통치 이념을 강화하기 위한 性理書,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를 살필 수 있는 史書, 통치의 기본 질서를 마련하는 曆書 등이 주를 이루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선 조정에서 특정 서적을 賜入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sup>20)</sup> 한편 세종조부터 조선 조정에서 독자적으로 서적을 購入하기 시작하는데, 地理書, 醫書, 兵書 등, 국가 체제와 제도의 완비를 위한 실용서가 주를 이룬다.<sup>21)</sup>

세종은 이렇게 확보된 서적들을 집현전에서 연구하게 하는 한편으로, 스스로도 경연에서 직접 읽고 국가 경영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세종은 經學과 史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때의 경서는 성리학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實用으로서도 중요하였다. 經書와 史書에서 나라 다스리는 도리를 살피서 실제 통치에 활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는 세종이 경연에서 읽은 서적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된다.<sup>22)</sup> 반면에 경연 진강 책자 가운데 문학 관련 서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때 다음 세종의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杜詩와 같은 것은 風月을 읊조리는 것이므로 儒者의 정식 학문이 아니나, 또한 대강 익히지 않을 수 없으니 그대들은 더욱 학문에 힘써서 杜詩韓柳文 등의 글을 모두 익혀 보는 것이 가하다.<sup>23)</sup>

20) 이소연, 「조선 前期 중국 서적의 유입과 영향에 대한 고찰 : 『朝鮮王朝實錄』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11, pp.38-50.

21) 이소연, 앞의 논문, pp.67-84.

22) 박승애, 앞의 논문, pp105-106.

23) 『세종실록』 1430년(세종 12) 5월 18일. 위의 언급은 權採의 독서 성과를 점검하는 과정에 나온 말이다. 세종은 1426년(세종 8) 집현전의 연소하고 장래가 있는 선비로서 權採, 辛石堅, 南秀文을 뽑아 집에서 글을 읽으며 卞季良의 지도를 받도록 명한 바 있었다. 이른바 賜暇讀書 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이 때 『中庸』과 『大學』을 집중적으로 읽도록 하였다.

위의 언급을 통해 세종이 詞章學을 경시하는 기본 입장과, 필요에 의해 杜詩·韓柳文 등을 익혀야 한다는 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詩, 賦, 頌, 記, 策問, 義, 疑 등의 여러 형식의 문장을 작성하는 詞章은, 경학에 비하여 가벼운 것이지만 경학을 보조하여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인식된 것이다. 이른바 經學은 體이고 詞章은 用이라는 인식이다. 따라서 세종은 吟風弄月을 일삼아서는 안 되지만 실용적인 목표를 위하여 익혀야 한다고 하였다.

이때 조정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진 講經·製述 논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강경-제술 논쟁은 과거 시험에서 文科의 初場을 강경으로 할 것인가 제술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군주와 문신, 문신과 문신 사이에 있던 논쟁이다. 강경은 경서에 대한 구두와 훈석을 기본으로 하는 암기식 구술시험이고, 제술은 경서의 疑義를 비롯하여 논, 표, 문, 대책으로 정치적 사안을 분석하고 견해를 작성하거나 시문을 창작하는 필기시험이다. 태조, 태종조에는 강경이었지만 세종조에 대면하는 강경 시험이 공정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제술로 바뀌었다.<sup>24)</sup> 그런데 제술은 성균관 생도들이 오로지 초록만을 일삼고 경학에 힘쓰지 않는 폐단을 낳는다는 반론이 제기된다.<sup>25)</sup>

세종 10년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강경-제술에 대한 논쟁은 그 후 오래도록 경연과 정사에서 이루어졌다. 卞季良은 製述이 講經을 기초로 해야 하는 것이고, 효율적인 과거 시험을 위해서도 製述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6)</sup> 이에 대해 許稠는 講經의 법을 행하지 않으면 선비들이 모두 詞章만을 힘써서 교육적이지 않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sup>27)</sup> 그러나

24) 『세종실록』 1422년(세종 4) 10월 18일. 국상(태종 상) 중이고 흉년을 당하였으므로 생도가 서울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 講經은 그만두고 製述로 시험을 보게 하였다.

25) 『세종실록』 1428년(세종 10) 2월 12일. 22일

26) 『세종실록』 1428년(세종 10) 4월 23일.

27) 『세종실록』 1430년(세종 12) 8월 13일. 1432년(세종 14) 3월 12일.

세종은 처음부터 강경보다는 제술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강경론자의 주장을 따르지 않고 제술을 문과 정식으로 삼되, 강경을 상시의 교육에서 강화하는 절충책을 제시하였다.<sup>28)</sup>

製述을 통한 취재는 사장을 권장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사장이 ‘유자의 정식 학문’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효용이 있기 때문에 권장한다는 이 중적인 태도가 과거 정식을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장에 대한 세종의 입장은 다음의 언급에서도 확인된다.

지금은 어찌하여 訓誥를 바르게 하는 사람도 없는가? 儒生들이 詩學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내가 시학을 숭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詞章은 末藝이니 후세에 비록 ‘아무 시대에는 시학을 숭상하지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해될 것은 없다. 그러나, 예전의 聖賢들로서 詩와 賦에 겸하여 능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나도 역시 시학에 뜻이 있다. 위에서 좋아하는 이가 있으면 누가 좋아하지 않겠는가.<sup>29)</sup>

1435년(세종 17)에 『通鑑訓義』의 찬집관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시를 짓게 하면서 세종이 한 말이다. 이 언급에 앞서 세종은 李穡·鄭夢周 등이 經學에 정통하였음을 칭송하였다. 따라서 위의 언급은 경학의 훈고를 바르게 해야 하고 詞章은 末藝이므로 지어서는 안 되지만, 예전의 성현 중에도 시부를 지었고 세종 스스로도 좋아하므로 시를 짓는 것이 무방하다는 뜻이다. 즉 세종은 원칙적으로 사장학은 말예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시부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종이 스스로 시부를 좋아한다고 하자 곧바로 집현전 大提學 李孟喞이 상소를 올려 詩學振興策을 제기한다. 이맹균은 개국 이래 시행된 문과 정식으로 經術을 권면하는 방법이 갖추어졌으나 오직 詩學만 폐하여졌으니 국가의 쓰임을 위해 末技라고 하나 시학을 진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

28) 김남이, 「세종대 과거제도에 관한 논쟁과 유교문화 국가의 이상」, 『민족문화사 연구』 33, 2007, pp.133-147.

29) 『세종실록』 1435년(세종 17) 6월 8일.

였다. 구체적으로 ① 進士試 복설과 문과 중장의 고시과목에 論 대신 詩를 포함, ② 생원과 나이 25세가 지난 자는 진사시에 응시 제한, ③ 진사시는 禮曹와 集賢殿에서 관리, ④ 성균관 생원, 四部學堂, 鄉校에서도 楚辭, 文選, 李白·杜甫·韓愈·柳宗元·歐陽修·王安石·蘇軾·黃庭堅 등의 시를 익히게 하고 都會에서 고강할 것, ⑤ 仲直 이하 문신도 春秋仲月試를 위해 이백·두보·한유·유종원 등의 시를 익히게 할 것, ⑥ 집현전 直提學 이하가 읽은 서책 점검할 것, ⑦ 書筵官도 시를 짓고 빈객이 고찰할 것을 제안하였다.<sup>30)</sup>

이에 대해 사관은 강경을 폐한 이후 사장만 익히는 폐단이 있는데 詩賦로 선비를 뽑는 것을 청하였다고 비판적으로 기록하였고, 詳定所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黃喜·許誠 등이 詞章으로 가르침을 삼을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이맹균과 집현전의 건의를 따랐다. 실제로 진사시는 1438년(세종 20)에 복설되어 신숙주 등 1백 명이 뽑혔다.<sup>31)</sup>

그런데 진사시가 복설된 것은 실질적으로는 보다 복잡한 사정이 작용한 결과이다. 교육 진흥책에 의한 鄉校의 증가로 급증하게 된 학생에게 成均館에 입학할 기회를 많이 부여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였던 것이다.<sup>32)</sup> 그러나 진사시는 문장으로 나라를 빛내는 文章華國의 인재를 선발

30) 『세종실록』 1435년(세종 17) 6월 26일.

31) 『세종실록』 1438년(세종 20) 2월 7일.

32) 진사시 복설은 이미 1428년 鄭坤과 1431년 鄭宗本에 의해 제기되었다. 진사시 복설 이유는 생원시 입격자수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조선 초기에 교육제도를 정비하여 전국적으로 향교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 수도 증가하였는데 생원시는 3년에 100명만을 선발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았다. 이로 인해 생원시를 포기하고 곧바로 문과에 급제하는 사람도 늘어나게 되고, 이는 成均館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獎學을 목적으로 응시 연령을 25세로 제한한 진사시를 복설하기를 주장한 것이다. 또한 진사시 시행은 향교 교관을 보충하기 위한 성격도 가지고 있다. 향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향교 교관의 수급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소과 입격자에게 敎導의 자격을 주어 향교 교관을 충원하려 했다. 학교 교육의 활성화 결과로 초래된 인재 선발의 정체 현상을 해결하고 동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적절한 표현과 격식을 갖춘 외교 문서 작성이라는 실용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사장학이 개인의 인문학적 소양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강조된 것이다.<sup>33)</sup> 진사시 복설은 결과적으로 詩學을 진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 맹균의 제안에서 언급된 책과 제가의 시에 대한 학습이 공식적으로 행해지기 시작하였고, 본격적인 문학 관련 서적의 출판과 보급이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 Ⅲ. 문학 관련 서적 출판 양상

앞서 언급했듯이 세종은 사장을 末藝로 인식하는 태도를 취하여, 經筵에서도 주로 經書와 史書를 집중적으로 읽고 토론하였다. 따라서 세종조에 출판된 서적을 살펴보면 경서와 사서가 주를 이룬다. 그런데 세종은 즉위 중반 이후에는 사장과 시학을 옹호하는 발언을 종종 하고, 시학을 진흥할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기 시작한다. 또한 활자의 개량과 조판 기술이 발전하고, 종이 역시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1435년 이후 문학 관련 서적이 활발히 출판되기 시작하여 세종 말년에 이를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음은 세종조에 출판된 문학 관련 서적이다.<sup>34)</sup>

---

시에 학교 교육과 연계된 취재라는 차원에서 진사시 복설이 제기된 것이다. 김우용, 「조선 초기 진사시 성립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4, pp.41-65.

33) 김남이, 「집현전 학사의 문학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1, pp.65-66.

34) 이 표는 다음의 책과 논문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김학주, 앞의 책, pp.2-10. ; 김성수, 「『直指』와 금속활자 인쇄의 가치와 중요성을 규명하기 위한 朝鮮初期 금속활자 간행도서의 주제 분석」, 『서지학연구』 28, 2004, p.48면, p.54.

&lt;표 1&gt; 세종조 문학 관련 서적 출판 양상

연도	서명	판식	복간
1419	세종 1 新刊五百家註音辨昌黎先生文集	경자자, 목판	미상년 2차
1425	세종 6 宋朝名賢五百家播芳大全文粹	경자자	
1428	세종 10 文選六臣注	경자자	명종, 선조간, 중종 등
1429	세종 11 西山先生眞文忠公文章正宗	경자자	성종, 중종등
1429	세종 11 楚辭集註, 後語, 辨證	경자자, 목판	단종, 미상연간
1431	세종 13 杜工部草堂詩箋	목판	중종
1431	세종 13 黃氏集千家註杜工部詩史補遺	목판	무
1431	세종 13 杜詩范德機批選	목판	중종
1434	세종 16 選詩演義	경자자	무
	세종조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古賦	경자자, 목판	단종, 미상연간
	세종조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경자자	미상연간
1435	세종 17 分類補註李太白詩	갑인자	선조 정조 등
1435	세종 17 三韓詩龜鑑	목판	
1436	세종 18 歷代世年家, 東國世年歌	갑인자	
1438	세종 20 朱文公校昌黎先生集	갑인자, 목판	명종, 선조 등
1439	세종 21 唐柳先生外集	목판	무
1439	세종 21 詩人玉屑	목판	무
1440	세종 22 唐柳先生集	갑인자, 목판	미상년, 수차
1440	세종 22 樊川文集夾注	목판	미상년, 수차
1442	세종 24 選詩補註	갑인자	명종
1444	세종 26 詩選, 續編, 補編	갑인자	
1445	세종 27 香山三體法	갑인자	
1446	세종 28 宛陵梅先生詩選	갑인자, 목판	갑인자, 목판
1446	세종 28 匪解堂精選半山精華		
1447	세종 29 唐翰林李太白文集	목판	
1448	세종 30 東國正韻	갑인자	
1449	세종 31 月印千江之典	갑인자	
1449	세종 31 釋譜詳節	갑인자	
	세종 말년 纂註分類杜詩 완성	?	성종, 중종 등
	세종조 增刊校正王壯元集註分類東坡先生詩	갑인자, 목판	성종, 중종 등
	세종조 唐詩鼓吹	갑인자	성종
	세종조 唐詩句法	갑인자	무

### 1. 『文選』 등 기본 서적

세종조 초에 간행된 서적 중 눈에 띄는 것은 『文選』과 관련 서적이다. 『문선』은 南朝 梁의 昭明太子(蕭統)가 秦·漢 이후 齊·양나라의 대표적인 시문을 모아 엮은 책이다. 『문선』은 남북조 시기에 이미 지식인의 문장 학습서로 기능하였고, 隋와 唐을 거치면서 『문선』을 연구하는 학자가 많아지고 여러 주석서가 간행되었다.<sup>35)</sup> 그 중 가장 영향력이 많았던 것은 658년(唐 高宗 顯慶 3)에 완성된 『文選 李善注』이다. 이선주는 방대한 서적을 인용하여 주석을 하였기 때문에 본래 30권이던 『문선』을 60권으로 재편집하였다.

이후 718년(唐 玄宗 開元 6)에는 呂延濟·劉良·張銑·呂向·李周翰이 새로운 주석을 단 五臣注가 완성되었다. 이선주가 다양한 전적을 인용하여 전고와 사실의 용례 확인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오신주는 원문의 의미를 풀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본래 분량인 30권으로 편집하였다. 출처 확인에 그친 이선주에 비해 오신주는 해설 위주이기 때문에 작품 이해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 여겨졌다. 이런 이유로 오신주는 이미 五代에 판각이 이루어지고 北宋 시대까지 우위를 점하였다.<sup>36)</sup>

35) 이하 『문선』 주석본의 판본과 계열은 다음의 글을 참조하였다. 김영문, 「새롭고 아름다운 ‘文’의 향연-『文選』 해제, 『문선역주』 1, 2000, pp.47-54.

36) 이선주본과 오신주본의 판본과 전승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명칭	연대	전승	현재
이선주본	國子監本	1025년 교감, 1029년 주조, 1031년 진정	(→ 육가본 秀州 州學本)	북경도서관(1권), 대만 고궁박물관(11권) 잔질
	尤袤本	1189년	元 張伯顏本, 明 唐藩本, 清 胡克家本	
오신주본	毋昭裔本	後蜀(934-965) 연간		실전
	孟氏本	北宋 1026년	북송 二川, 兩浙의 두 판본 교정 → 南宋 杭州 馬鋪鍾家本 (→ 육가본 秀州 州學本)	맹씨본 실전 항주본 북경대학도서관(29권) 북경도서관(30권)
	陳八郎本	南宋 1161년		대만 중앙도서관본

이후 오신주와 이선주를 통합한 판본이 나온다. 두 가지 주석서를 서로 참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통합 판본은 시대마다 학계 동향에 따라 편집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북송 초에는 오신주가 중시되어 오신주를 앞에 두고 이선주를 더한 六家本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蘇軾이 오신주를 신랄하게 비난한 것을 계기로, 북송 말기에는 이선주가 다시 권위를 얻어 이선주를 앞에 두고 오신주를 뒤에 붙이는 六臣本이 나온다. 이들 통합본이 나오자 이선주본과 오신주본은 점차 자취가 사라졌고, 이로 인해 전 시기에 간행되었던 여러 판본이 일실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선』은 이미 삼국시대에 전래되었고,<sup>37)</sup> 조선시대까지 중요한 문학 학습서로 활용되었다. 그런데 1428년(세종 10)에 간행된 경자자본 60권 60책 『문선』은 이선주, 오신주, 그리고 통합본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책이다. 이 책은 육가본 계열의 ‘五臣注并李善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기록 두 편이 실려 있어 『문선』의 계보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우선 元祐 9년(1094)에 쓰인 기록에는 秀州 州學에서 國子監本(이선주본)을 가지고 이선주와 오신주를 단락에 따라 편입시켰다고 하였다. 또한 함께 수록된 沈嚴의 <五臣本後序>(1026년에 판각된 오신주본의 서문)에 의하면 그간 二川과 兩浙에서 오신주본을 인행하기는 하였지만 거칠어 참고할 만하지 못하였다가 平昌

37) 『문선』은 고구려 민간교육기관이었던 扁堂에서 五經 등과 함께 교육되었고(『舊唐書』 권199, 「列傳」 제149, <高句麗條>. “俗愛書籍, 至於衡門廝養之家, 各於街衢造大屋, 謂之扁堂. 子弟未婚之前, 晝夜於此 讀書習射. 其書有五經及史記漢書范曄後漢書三國志孫盛晉春秋玉篇字統字林, 又有文選, 尤愛重之.”) 신라 태종 무열왕 연간(654~661)에 활약한 強首는 『문선』에 능통하여 한문으로 된 외교문서를 능수능란하게 지었다고 한다.(『三國史記』 권46, 「列傳」 제6, <強首, 崔致遠, 薛聰> “強首 …遂就師讀孝經曲禮爾雅文選.”) 통일신라기에 이르러서는 신문왕 2년(682)에 國學을 설치하여 儒家 經典과 더불어 『문선』이 중요 교과목으로 배정되었고(『三國史記』 권38, 「雜志」 제7, <職官 上>) 원성왕 4년(788)에 실시된 讀書三品科에서도 경전과 『문선』에 능통한 자를 上品으로 등용하였다.(『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 <元聖王, 昭聖王, 哀莊王, 憲德王興德王, 僖康王, 閔哀王, 神文王>)

의 孟氏가 두 판본을 교정하여 새로 간행한다고 하였다.

두 기록을 종합하면, 경자자본 『문선』은 그간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육가본 秀州 州學本을 간행한 것이고, 秀州 州學本은 최초의 이선주본이지만 전승이 단절된 국자감본(1031년)과, 역시 가장 이른 시기인 1026년에 간행된 孟氏本 오신주를 저본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자감본은 중국에서 전승이 끊긴 지 오래 되었고, 맹씨본 역시 그 존재가 중국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경자자본 『문선』은 중국에서는 일실된 최초의 육가본 秀州 州學本을 저본으로 하였으며, 여기에는 최초의 이선주본인 국자감본과 최초의 오신주본은 맹씨본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 하겠다.<sup>38)</sup> 경자자본은 중국에서는 전승이 끊긴 『문선』의 판본, 그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판본을 저본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조선의 학문 수준이 우수한 판본을 감식해내는 정도였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자자본이 간행된 뒤에 『문선』 관련 서적이 여럿 간행된다. 특히 시만을 대상으로 한 서적이 인행된다. 1434년(세종 16)에 『選詩演義』, 1442년(세종 24)에 『選詩補註』가 간행된 것이다. 『選詩演義』는 宋의 曾原一이 『문선』의 시 가운데 가리고 여기에 도연명의 시를 더하여 300수의 시를 시대순으로 배열하고 疏註를 붙인 것이고, 『選詩補註』는 元의 劉履가 『선시연의』의 뒤를 이어 15권으로 엮은 책으로 ‘補註, 補遺, 續編’으로 나뉘어 있다. 특히 『선시연의』와 『선시보주』의 인출은 古詩에 대한 사대부 문인들의 관심을 반영하며, ‘選詩’라는 용어와 개념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된다.<sup>39)</sup> 이렇듯 『문선』 수록 시만을 간행한 것은 앞서 경자자본 『문선』이 거절이어서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추정된다.

한편 세종은 『文章正宗』과 『楚辭』 등은 학자가 몰라서 안 되는 책이므로 鑄字所에 명해 인출하라는 명을 내렸다.<sup>40)</sup> 이에 『西山先生眞文忠公文

38) 김영문, 앞의 글, pp.52-53.

39) 심경호, 앞의 논문(2004), p.198.

40) 『세종실록』 1428년(세종 10) 11월 12일.

章正宗』이 1429년(세종 11)에 경자자로 간행되었다. 『문장정중』은 眞德秀(1178-1235)가 先秦 兩漢 시기의 史書로부터 唐末까지의 모범이 될 만한 古文과 문인들의 詩文集에서 古體詩를 가려 뽑아 주석을 덧붙여 편찬한 문장선집이다. 시기적으로 보아 이 시기에 전래된 판본은 元刻 明修본일 가능성이 크다.<sup>41)</sup> 조선전기에 『문장정중』의 비점법을 수용하여 문장 비평에서 菁華傍點과 字眼圓點을 사용하게 되는 등 영향력이 컸던 책이다.<sup>42)</sup>

또한 조선 문단에서 『문선』만큼 중시한 책이 『楚辭』이다. 『초사』 관련 책으로는 東漢의 王逸이 지은 『楚辭章句』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北宋 洪興祖가 여기에 대한 補註를 더한 것이 널리 읽혔다. 그러나 朱熹는 『장구』와 『보주』가 훈고에 정밀하지만 작자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여겨 『楚辭集註』 8권을 완성하였다. 또한 왕일과 홍홍조를 비롯한 전대 학자들의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기 위한 『楚辭辨證』 2권, 荀卿(B.C.298?-B.C.238?) 부터 呂大臨(?-1090?)에 이르기까지 후대에 이루어진 초사 계열의 작품을 모은 『楚辭後語』 6권을 완성하였다.<sup>43)</sup> 조선에서는 여타 계열의 판본의 『초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주희의 『집주』(부 『변증』, 『후어』)만 보이는데, 가장 이른 것이 1429년(세종 11) 경자자로 인출된 책이다. 그 저본은 원나라 至治 원년(1321) 建安 虞信亨宅重刊本이다.

한편 과거문의 표본을 보여주는 서적도 간행된다.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과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古賦』가 그것이다. 元 劉霖등이 편찬한 『歷舉三場文選』을 劉貞이 新刊類編으로 개편한 것으로 여겨진다.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은 송 江浙鄉試, 江西鄉試, 湖廣鄉試의 응시문과, 中書省 會試의 응시문을 對策·經疑·古賦 등으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이 가운데 對策과 古賦를 별도로 간행하였는데, 과거 수험서로서

41) 제해성, 「《文章正宗》의 編纂體制와 眞德秀 文體論의 獨創性 研究」, 『중국어문학지』 59, 2017, pp.89-90.

42) 심경호, 앞의 논문(2004), p.190.

43) 김학주, 「『楚辭集註』와 그 조선 간본」, 앞의 책, pp.133-141.

의 활용도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재미자로 인행되고 다시 세종조에 경자자로 인쇄되었고, 이후에도 번각본이 수차례 간행되었다.<sup>44)</sup> 이는 이 서적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 전통적으로 문장 또는 시 학습에서 중시되었던 『문선』 『文章正宗』 『楚辭』와 科擧의 교재로서 세종조에 간행된 책을 살펴보았다. 특히 『문선』은 세종조 문학 관련 서적의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즉 세종조의 서적 출판은 여러 이유로 전승이 되지 못하거나 구하기 어려운 판본을 확보하여 간행함으로써 학술의 정통성을 계승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하게 하며, 이는 여타의 책에서도 확인된다.

## 2. 詩學 진흥과 李白, 杜甫 시집

세종이 시에 대해서 긍정하는 발언을 한 것은 세종 17년 이후이다. 그러나 학시의 전범으로 일컬어지는 杜甫에 대한 관심은 그보다 앞서 있었다고 추정된다. 1431년(세종 13)에 간행된 3종의 두시 관련 서적이 그 증거이다. 이 해 밀양에서 『杜工部草堂詩箋』(40권)과 『黃氏集千家註杜工部詩史補遺』(11권)이 간행되었고, 해주에서 『杜詩范德機批選』(6권)이 간행되었다.

『두공부초당시전』은 宋 魯崑이 남송 고종 23년(1153) 편차하고, 蔡夢弼이 남송 영종 10년(1204)이 會箋한 것이다. 『황씨집천가주두공부시사보유』는 송나라 黃鶴과 채몽필이 집주하고, 채몽필이 교정을 본 것이다. 두 책 모두 편년체로 구성되어 두보의 생애를 따라 시를 이해하기에 좋다. 두 책을 엮는데 참여한 채몽필은 두시 공부에 이용하기 편하면서도 주와 훈석에 오류가 없게 하고자 하였다.<sup>45)</sup> 『두시범덕기비선』은 현전하지 않는데,

44) 현영아, 「『新刊類編歷擧三場文選對策』의 書誌의 研究」, 『인문과학연구논총』 27, 2005, pp.65-71.

45) 김남이, 「조선전기 두시(杜詩) 이해의 지평과 『두시언해(杜詩諺解)』 간행의 문학사적 의미」, 『한국어문학연구』 58, 2012, pp.129-132.

元の 范梈(字 德機)이 批選하고 鄭鼐가 編次한 杜詩集이다. 이 책의 편차는 古詩律詩 및 五七言을 나누고, 창작 時地의 선후에 따른 체제를 갖추고 있다. 1400년(정종 2)에 李詹이 8월의 經筵에서 이 책을 진강할 것을 청한 것으로 보아, 이른 시기에 이미 조선에 전래되어 讀杜詩史를 열었음을 알 수 있다.<sup>46)</sup> 그러나 선초의 사대부들은 心學을 聖學으로 확립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두시를 포함한 詩文의 進講은 거부되었다. 그러다가 세종조에 판각된 것이다.

그런데 3종의 두시집은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1443년(세종 25) 세종은 제가의 주석을 모아 서로 참조하여 교정하고, 합하여 하나로 만들라는 명을 내린다. 이른바 『纂註分類杜詩』의 편찬, 간행 작업 시작된 것이다. 박팽년의 언급에 따르면 그 편찬 작업을 총관한 사람은 安平大君이고, 실제 일을 담당한 사람은 辛碩祖(1407~1459) 등 6인이라고 하였다.<sup>47)</sup> 집현전 학자로 추정되는 6인 외에, 두시에 조예가 깊었던 僧 千峰(卍雨)도 참여하여 세종 말엽에 『찬주분류두시』가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찬주두시』는 徐居仁 편차본인 『集千家註分類杜工部詩』을 저본으로 하여 분류식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高崇蘭 편차본인 『集千家註批點分類杜工部詩集』을 저본으로 하여 批點이 첨각되었다.<sup>48)</sup> 비점은 劉辰翁의 『批點選注杜工部』을 채택하고 있다. 두보의 시를 제가의 주석에 근거하여 보다 학술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렇듯 세종조에 杜詩와 관련되어 1431년 3종의 두시집이 간행되었고, 1443년에는 주석서를 모아 합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사이에 또 다른 중요한 시집 『分類補註李太白集』이 간행되었다. 이 책은 宋 楊齊賢이 註하고 元 蕭士贊이 補註한 이 책은 至元 辛卯(1291)에 완성된 것으로, 1435

46) 심경호, 「조선조의 두시집 간행과 두시 수용」, 『杜詩와 杜詩諺解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태학사, 1998, pp.12-13.

47) 朴彭年, <三絶詩序>, 『朴先生遺稿』. “正統八年夏四月, 上命會粹子美詩註, 于時, 鷲山辛公以下凡六人爲屬官, 匪懈堂實摠裁焉.”

48) 심경호, 앞의 논문(1998), pp.28-29.

년(세종 17) 9월에 인출되어 이듬해 1월에 반사하였다.<sup>49)</sup>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주석본으로 주석이 비교적 상세하여 원대에 간행된 이백 문집의 善本으로 평가된다.<sup>50)</sup>

앞서 살폈듯, 이 해 6월에 세종은 자신이 시를 좋아한다고 밝혔고, 이맹균은 진사시 복설 등 시학을 진흥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시학의 교본이 되는 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상태에서 『분류보주이태백집』을 간행하여 반사한 것이라 추정된다. 특히 『분류보주이태백집』은 갑인자로 된 최초의 문학 서적인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후 갑인자로 문학 서적이 다수 간행되는데, 『찬주분류두시』 역시 갑인자로 인쇄되었다. 이전의 두시가 모두 목판으로 간행되었던 것과 비교된다.

그런데 『분류보주이태백집』과 『찬주분류두시』는 갑인자본 이백, 두보 시집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점을 지닌다. 이백시집은 중국본을 그대로 복각한 것이지만 찬주두시는 집현전을 통해 새로 편찬한 점이 크게 다르다. 세종이 사장과 시학을 긍정하는 입장을 보인 직후에 간행된 이백시집과 달리, 그 뒤에 두시를 찬집할 때는 주석본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독자적으로 새로운 서적을 편찬한 것이다. 세종이 중국본을 수입하여 복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주석본을 새로 편찬하였다고 하겠다.<sup>51)</sup> 이러한 독자적인 서적 편찬은 세종조 중반 이후 중요 시문집 간행의 기본 방향으로 자리잡았다.

### 3. 독자적인 詩文集 편찬과 주해

세종조에는 문장과 시의 전범이 되는 인물의 글을 별도로 모아 간행하는 일이 빈번히 있었다. 제일 중시된 인물은 韓愈이다. 일찍부터 문장의

49) 『세종실록』 1436년(세종 18) 1월 29일.

50) 당윤희, 「朝鮮 世宗朝에 간행된 唐人 別集類 略考」, 『中國語文論叢』 52, 2012, p.208.

51) 심경호, 앞의 논문(2004), p.200.

모범으로 숭상된 한유의 문집은 수많은 판본으로 간행되었는데, 가장 이른 것은 1419년(세종 원년) 진주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五百家註音辨昌黎集』 外集이다. 이 책은 魏仲舉가 1200년에 편찬한 주석서로 제가의 評論, 音釋 등을 수록하여 한유 문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조선 간행본은 송원판본을 복각한 것이다.

그런데 20년 뒤인 1438년(세종 20)에 세종은 특별히 집현전에 명하여 한유와 유종원 문장의 주석을 찬집하도록 명하였다.<sup>52)</sup> 이에 崔萬理, 金鑛, 李永瑞, 趙須이 『朱文公校昌黎先生集』을 갑인자로 간행하였다.<sup>53)</sup> 본래 『주문공교창려선생집』은 중국에서 가장 성행한 판본인데, 갑인자본은 중국본을 저본으로 하되, 여기에 朱子の 교정본인 『韓文考異』의 교정, 위중거의 『五百家註音辨昌黎集』와 韓醇의 『新刊訓詁唐昌黎先生文集』 등을 참조하여 기왕의 주석을 선별 취집하였다. 중국본의 체례를 따르고 있지만 한유 글을 읽는 독자에게 가장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라 할 수 있다.<sup>54)</sup> 세종 17년에 시학을 긍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백시집을 갑인자로 간행한 뒤, 조선 학계에서 독자적으로 주석을 수집하고 편집하여 책을 편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양상이 柳宗元의 문집 간행에서도 확인된다. 1440년(세종 22)에 갑인자로 간행된 『唐柳先生集』에 수록된 南秀文이 지은 발문에 의하면, 이 책이 『朱文公校昌黎先生集』과 같은 방법으로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宋童宗說이 音注를 달고 張敦頤가 音辨을 달고 潘緯가 音義를 덧붙인 주석본 『增廣注釋音辨唐柳先生集』의 판본을 위주로 하고, 『五百家註音辨柳先生文集』와 韓醇의 『訓詁柳先生文集』의 주석을 증보한 것이다. 주석을 고루 참조하여 타당한 것을 선택하고 경우에 따라 수정하

52) 『세종실록』 1438년(세종 20) 11월 30일.

53) 앞서 1435년에 갑인자로 『이태백집』을 인행한 이후 갑인자로 문학 관련 서적을 대거 간행하게 된다.

54) 당윤화·오수형, 「朝鮮時代に 간행된 韓愈 詩文集 판본 연구」, 『중어중문학』 47, 2010, p.361.

여 수록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정확한 서적이라 할 수 있다.<sup>55)</sup>

『增刊校正王壯元集註分類東坡先生詩』 역시 조선에서 여러 판본을 비교하여 독자적으로 편찬한 책이다. 소식의 시집에는 여러 계통의 판본이 있는데, 宋 王十朋이 소식의 시를 79類로 분류하고 주석을 모아 25권으로 편찬한 『王壯元集百家注分類東坡先生詩』가 가장 우선한다. 이후 元대에 宋本의 편차를 약간 바꾸고 주석을 추가거나 보완한 『增刊校正王壯元集註分類東坡先生詩』 虞本이 나오고, 다시 중간본에 劉辰翁의 批點과 總評을 더한 雄本이 있게 된다. 세종조에 간행된 갑인자본은 虞本을 저본으로 하였지만 체제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雄本의 비점이 첨가되었으나 유진용의 총평이 빠져 있다. 즉 갑인자본은 우본과 옹본이 결합한 형태의 판본을 저본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56)</sup>

활자로 인행된 것은 아니지만 목판으로 간행된 『樊川文集夾注』도 매우 중요한 서적이다. 이 책은 가장 오래된 두목의 시문집이며, 明代에 간행된 『번천문집』과 다른 판본이다. 말미의 1440년(세종 22)에 錦山에서 개간되었다는 刊記가 있다. 鄭坤의 발문에 따르면 監司 權克和가 주관하여 知錦山郡事 李賴가 이전 판본의 오류를 교정하여 간행하였다고 한다.<sup>57)</sup> 특히 이 책의 夾注는 『夾注名賢十抄詩』와 매우 유사한 면모를 지니는데,<sup>58)</sup> 『十道志』와 같은 일실 서적을 다수 인용하고 있다. 즉 『번천문집협주』의 고려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sup>59)</sup>

이상 세종조에 간행된 한유, 유종원, 소식, 두목의 시문집을 살펴 보았다. 한유와 유종원의 문집은 임금의 지시에 따라 집현전에서 중국의 여러

55) 당윤희·오수형, 「柳宗元 詩文集의 朝鮮에서의 수용과 유통 : 한국 소장 柳宗元 詩文集 판본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66, 2011, pp.427-429.

56) 당윤희, 「朝鮮刊 蘇軾 詩集 板本 小考」, 『중어중문학』 45, 2009, pp.85-88.

57) 당윤희, 앞의 논문(2012), p.219.

58) 『夾注名賢十抄詩』는 생몰년 미상의 儒者가 고려 초에 편찬한 시선집 『十抄詩』에 고려 말의 釋 子山이 주석을 붙인 책이다.

59) 김호, 「朝鮮刊本 『樊川文集夾註』의 夾註者 國籍에 관한 一考 -고려시대 중국서적 장서환경의 관점에서」, 『中國語文學誌』 43, 2013.

전적을 참조하여 체계적인 체제를 갖추면서도 자세한 주석을 덧붙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간행하였다. 한편 두목의 문집은 세종조에 편찬된 것은 아니고 지방에서 목판에서 간행된 것이지만, 고려조에 독자적으로 완성된 문집을 간행한 것이다. 즉 이들 서적의 공통점은 중국본의 기계적인 출판이나 복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곧 세종조의 학문 역량과 안목을 대변한다고 하겠다.

#### 4. 安平大君 주도 간행 서적

세종의 셋째 아들 安平大君(1416-1453)은 세종조의 문화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sup>60)</sup> 그의 학문적 역량 역시 상당히 깊은 편이었으며 그 식견을 바탕으로 서적 출판에도 기여하였다. 『韻會』를 집현전에서 번역할 때는 세자, 수양대군과 함께 관장하고,<sup>61)</sup> 都承旨 李思哲·右副承旨 李師純·僉知中樞院事 盧仲禮와 함께 『醫方類聚』를 감수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sup>62)</sup> 또한 안평대군은 문학에도 조예가 있어서 관련 서적 출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안평대군이 관여한 문학 관련 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찬주분류두시』이다. 그런데 이는 왕명으로 집현전 학사들과 공동으로 진행한 편찬 작업이다. 반면에 안평대군이 독자적으로 편찬하여 간행한 서적이 다수 있어 주목을 요한다.

『香山三體法』은 안평대군이 1445년(세종 27)에 白居易의 오언사운, 칠언사운, 칠언절구를 선하고 교감한 뒤 간간이 주를 붙여서 갑인자로 간행한 책이다.<sup>63)</sup> 宋 周弼의 『三體詩』 체제를 따라 5율, 7율, 7절 3체의 작품을

60) 이종목, 「安平大君의 문학 활동 연구」, 『진단학보』 93, 2002 ; 김풍기, 「안평대군 그룹의 문화적 토대와 창작 경향 : 조선 초기 관인문학의 이상향 찾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36, 2014.

61) 『세종실록』 1444년(세종 26) 2월 16일.

62) 『세종실록』 1445년(세종 27) 10월 27일.

63) 강순애, 「초주갑인자흔입보자본 『香山三體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45, 2010. pp.5-32.

가려 뽑은 것으로 보인다. 안평대군이 붙인 발문에 의하면, 백낙천의 시집이 너무 방대하고 번다하므로 찾아 읽기가 어려워서 백거이 시 3,000여 수 중에서 150제 185수를 선발하여 편찬한다고 하였다.

『匪懈堂選半山精華』은 1446년(세종 28)에 王安石의 시를 뽑아 주석을 단 책으로 안평대군과 신숙주의 서문이 있다. 특징적으로는 ‘以天地人三才分門類集’하고, 다시 각 부류 내에서 세부적인 제재에 따라 하위분류를 하여 작품을 수록하였다.<sup>64)</sup> 제재별로 수록한 것은 『찬주분류두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宛陵梅先生詩選』은 안평대군이 1446년(세종 28) 봄에 梅堯臣의 시를 선하고 주를 단 책으로, 상하 2권 1책의 갑인자로 간각되었고, 이듬해 1447년(세종 29) 7월 전라도 관찰출척사 李思任이 금산에서 갑인자본을 번각하였다. 안평대군은 매요신을 근체시에 뛰어나며 古詩와 樂府 등 다양한 시체에도 초학자의 전범이 될 만한 특징을 지닌 인물로 평가해서 시선집을 편찬하였다.<sup>65)</sup>

『唐宋八家詩選』은 1447년(세종 29)에 안평대군이 여러 문사와 함께 이백, 두보, 韋應物, 柳宗元, 歐陽脩, 王安石, 蘇軾, 黃庭堅의 시를 가려 뽑아 편찬한 책이다.<sup>66)</sup> 『香山三體法』과 마찬가지로 『三體詩』 체제를 따라 5율, 7율, 7절 등 3체의 작품을 가려 뽑았다.<sup>67)</sup> 여기서 八家は 일반적으로 통칭되는 범주와 다르다는 점에서 안평대군의 독창적인 안목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안평대군은 황정건의 시를 가장 높이 기려서 다시 『山谷精粹』를 편찬하였으나 전하지 않는다. 최항의 서문에 따르면 안평대군이 황정건의 短章 중 좋은 것을 가리고 여기에 評論을 붙여 엮었다고 하였고, 江西

64) 황위주, 앞의 논문, pp.326-327.

65) 안장리, 「匪懈堂의 『宛陵梅先生詩選』의 註解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14, 2001, p.167.

66) 成三問, <八家詩選序>, 『成謹甫集』 권2 ; 朴彭年, <八家詩選序(見東文選)>, 『朴先生遺稿』 ; 李埏, <八家詩選序>, 『東文選』 권94.

67) 황위주, 「韓國本中國詩選集의 編纂에 대한 研究」, 『동아인문학』 3, 2003, pp.321-323.

詩派의 시조인 황정건의 시를 학습함으로써 시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였다.<sup>68)</sup> 조선 문단에서의 江西詩派에 대한 이해가 아직 깊지 않았고, 황정건의 시문집이 전해지지 않았던 시절의 언급이므로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안평대군이 편찬한 시문집은 세종 말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안평대군이 『찬주분류두시』 편찬 작업에 참여한 이후에 독자적으로 시문집을 편찬, 간행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唐宋八家’를 독창적으로 설정하는 등 안평대군이 독자적인 안목을 지니고 적극적으로 시문을 평가하고, 왕안석, 황정건, 매요신 등 송대 문인을 높이 평가하여 이들의 시를 가려뽑아 주해를 달거나 평론을 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안평대군이 주도하여 간행한 시문집은 그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과 문학적 역량, 그리고 당시 조선의 문단의 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즉 안평대군의 편찬 서적은 개인적인 애호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뜻이다. 세종 말기에 왕명으로 문학 서적을 편찬하여 간행하도록 할 때 중국본을 저본으로 삼되 별도의 서적을 참고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자세한 주해를 더하여 독자적인 서적을 간행하는 분위기에 힘입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왕실과 조정 및 문단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 안평대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이상의 서적이 편찬되고 간행되었다고 하겠다.

#### IV. 결론

세종은 조선의 문화적인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수많은 서적을 간행, 보급하였는데, 주로 통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서적과 백성의 삶과

68) 崔恒, <山谷精粹序>, 『太虛亭文集』 권1.

직접 관련된 서적 편찬에 적극적이었다. 반면에 세종조에 출판된 전체 서적 중 문학 서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행된 32종의 문학과 관련 서적은 향후 조선 문단의 기본적인 학습서로 활용된다.

세종조에 수많은 서적이 출판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출판 관련 하드웨어의 정비를 들 수 있다. 세종조에는 활자를 정교히 다듬어 경자자와 갑인자가 나왔고, 조판 기술과 인쇄술 또한 발달하였다. 또한 세종은 인쇄할 때 소용되는 종이를 확보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졌다. 세종은 造紙署를 통해 지료의 다양화와 배합지 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책지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세종조의 수많은 서적은 기술적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세종은 문학을 末藝로 여겼기 때문에 문학 관련 서적이 매우 드물게 간행된다. 그런데 1435년(세종 17)에는 세종 스스로가 시부를 좋아한다고 하고, 집현전 大提學 李孟暉이 詩學振興策을 제기하면서 문학 관련 서적이 전에 비해 늘어나게 된다.

세종조에 간행된 문학 관련 서적의 특징은 조선의 독자성을 떠나는 점이다. 가장 앞선 것으로 경자자본 『文選』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중국에서 확인할 수 없는 秀州 州學本을 저본으로 하였는데, 여기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지만 일실되었던 國子監本(이선주본)과 孟氏本(오신주본)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이유로 전승이 되지 못하거나 구하기 어려운 『문선』 관련 판본을 확보하여 간행함으로써 학술의 정통성을 계승해 나갔다고 하겠다.

아울러 학시의 전범이 되는 杜詩 관련 서적을 다수 간행하면서 독자적으로 주해를 달아 『纂註分類杜詩』이 세종 말엽에 완성된다. 『찬주분류두시』는 조선의 학자들이 주석본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독자적으로 편찬한 새로운 서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종이 중국본을 수입하여 복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주석본을 새로 편찬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독자적인 서적 편찬은 세종조 중반 이후 중요 시문집 간행의 기본 방향으로 자리잡았다.

韓愈, 柳宗元, 蘇軾의 시문집을 간행할 때도 집현전에서 중국의 여러 전적을 참조하여 체계적인 체제를 갖추면서도 자세한 주석을 덧붙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간행하였다. 한편 『찬주분류두시』 편찬을 총관하기도 한 안평대군은 독자적인 안목을 지니고 적극적으로 시문을 평가하여 여러 종의 시문집을 편찬, 간행하였다. 이는 안평대군의 개인적인 취향과 문학적 역량, 그리고 당시 조정에서 독자적인 주해서를 편찬하는 분위기가 작용한 결과라 하겠다.

〈參考 文獻〉

『世宗實錄』,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東文選』, 고전번역원 홈페이지.

朴彭年, 『朴先生遺稿』, 『韓國文集叢刊』 9, 고전번역원.

成三問, 『成謹甫集』, 『韓國文集叢刊』 10, 고전번역원.

崔 恒, 『太虛亭集』, 『韓國文集叢刊』 9, 고전번역원.

김학주, 『조선시대 간행 중국문학 관계서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박현모 외, 『세종의 서재』, 서해문집, 2017.

천혜봉, 『한국금속활자본』, 범우사, 1993.

강문식, 「世宗의 ‘인재경영’과 集賢殿」, 『선비문화』 13, 2008.

강순애,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香山三體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45, 2010.

김남이, 「집현전 학사의 문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_\_\_\_\_, 「세종대 과거제도에 관한 논쟁과 유교문화 국가의 이상」, 『민족문화사연구』 33, 2007.

\_\_\_\_\_, 「조선전기 杜詩 이해의 지평과 『杜詩諺解』 간행의 문학사적 의미」, 『한국어 문학연구』 58, 2012.

김성수, 「『直指』와 금속활자 인쇄의 가치와 중요성을 규명하기 위한 朝鮮初期 금속활자 간행도서의 주제 분석」, 『서지학연구』 28, 2004.

김영문, 「새롭고 아름다운 ‘文’의 향연—『文選』 해제」, 『문선역주』 1, 2000.

김우용, 「조선 초기 진사시 성립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김풍기, 「안평대군 그룹의 문화적 토대와 창작 경향 : 조선 초기 관인문학의 이상향 찾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36, 2014.

김 호, 「朝鮮刊本 『樊川文集夾註』의 夾註者 國籍에 관한 一考 -고려시대 중국서적 장서환경의 관점에서」, 『中國語文學誌』 43, 2013.

당윤희, 「朝鮮刊 蘇軾 詩集 板本 小考」, 『중어중문학』 45, 2009.

- \_\_\_\_\_, 「朝鮮 世宗朝에 간행된 唐人 別集類 略考」, 『中國語文論叢』 52, 2012
- 당윤화오수형, 「朝鮮時代に 간행된 韓愈 詩文集 판본 연구」, 『중어중문학』 47, 2010.
- \_\_\_\_\_, 「柳宗元 詩文集의 朝鮮에서의 수용과 유통 : 한국 소장 柳宗元 詩文集 판본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66, 2011.
- 박승애, 「世宗의 讀書活動에 관한 研究-經筵 進講을 中心으로」, 『사대도협회지』 6, 2005.
- 박준호, 「조선 전기 紙料와 配合紙 생산」, 『동양학』 66, 2017.
- 박현모, 「세종의 공론 형성과 국가경영-貢法 도입과정을 중심으로」, 『세종의 국가경영』, 2006.
- 심경호, 「조선조의 두시집 간행과 두시 수용」, 『杜詩와 杜詩諺解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태학사, 1998.
- \_\_\_\_\_, 「조선전기의 註解本 간행과 문헌 가공에 대하여」, 『大東漢文學』 20, 2004.
- 안장리, 「匪懈堂의 『宛陵梅先生詩選』의 註解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14, 2001.
- 유대균, 「선조 주자소 설립과정과 그 활동」, 『東洋古典研究』 29, 2007.
- 이소연, 「조선 前期 중국 서적의 유입과 영향에 대한 고찰 : 『朝鮮王朝實錄』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종묵, 「安平大君의 문학 활동 연구」, 『진단학보』 93, 2002.
- 정선영, 「조지서의 관제와 관리」, 『서지학연구』 50, 2011.
- 제해성, 「《文章正宗》의 編纂體制와 貞德秀 文體論의 獨創性 研究」, 『중국어문학지』 59, 2017.
- 현영아,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의 書誌의 研究」, 『인문과학연구논총』 27, 2005.
- 황위주, 「韓國本中國詩選集의 編纂에 대한 研究」, 『동아인문학』 3, 2003.

## Abstract

### *A Study on Literature Related Publications in the reign of King Sejong(世宗)*

Kim Eun-Jeong\*

The background of publishing numerous books at Sejong(世宗) is the maintenance of publishing hardware. In King Sejong, the metal type was refined, and the typesetting and printing techniques were also developed. In addition, Sejong was also interested in securing paper that is useful for printing. Sejong was able to secure books through diversification of materials and use of compounding sites. Many of Sejong's books have been published because of their technical backing.

Meanwhile, Sejong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cholarship for practical reign. Since Sejong regarded literature as the final art, literature related books are rarely published. In 1435 (Sejong 17), however, Sejong herself likes poetry. So literature related books will increase compared to before.

The most noteworthy among the books related to literature in Sejong: It is the book of *Moon-san*(『文選』). Sejong succeeded in the legitimacy of scholarship by securing and publishing editions related to the *Moon-san*, which can not be passed down for various reasons or are difficult to obtain, which is confirmed in other books.

The characteristic of literature related books published in Sejong is that it is unique in Korea. One of the most advanced is the *Moon-san*(『文選』). This book is based on the book of the province of Hsinchu(秀州) which can not be confirmed in China. It is the earliest period here, but it is possible to confirm both the Lee Sun(李善)'s annotation book and Six minister's annotation which is difficult to obtain or can not be handed down for various reasons.

In addition, while publishing a large number of books related to Du Fu(杜甫) poetry that become he model of the poetry, *Chanjju-Bunmyu-Doosbi*(『纂註分類杜詩』) is completed in the end of King Sejong. It is meaningful that *Chanjju-Bunmyu-Doosbi* is a new book

---

\* Hongik Univ.(Sejong), Assistant Professor / eunsiro@daum.net

compiled independently by the scholars of Joseon collecting and analyzing annotations. I do not think that King Sejong imported and reprinted the Chinese version, but compiled a new version of the annotation.

This unique book compilation has become a basic direction for publishing important textbooks since the middle of Sejong. When publishing a collection of literature, he published a series of Chinese poems in his collection of poems, with a systematic framework, with detailed comments added to help learners.

On the other hand, Anpyung Daegun(安平大君) who was also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Chanjung-Bunmyu-Doosbi* compilation, edited the poetry with his own eyes and actively compiled and published several kinds of poems. This is the result of the personal tastes and literary capacities of the Anpyung Daegun, and the atmosphere of compiling the original notes in the concertation.

**【Key words】** Sejong(世宗), Literature Books, Publishing Hardware, Literature Promotion Policy, Independent literary book, Identity, AnpyungDaegun(安平大君)

투고일 : 11월 9일, 심사완료일 : 12월 2일, 게재확정일 : 12월 4일